

박원호 목사의 12단계 성경공부 _ 6단계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II, 성경의 중심 주제들 II

교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승리

01	교회의 시작은 언제인가?	2
02	계시록(Revelation)	8
03	일곱 교회	13
04	일곱인	18
05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24
06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30



교회의 시작은 언제인가?

행 2:1-13

6단계에서는 교회와 종말을 다루려고 합니다. 교회와 종말을 따로 다루지 않고 함께 다루는 이유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기관입니다.

6단계의 주제는 교회와 종말입니다. 이 두 주제를 다루면서 계시록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계시록을 정한 이유는 교회와 종말은 함께 다루어야 하는 주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종말을 통해서 볼 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몇 가지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세움으로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아울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는 오른 속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에베소), 어떤 경우는 처음이며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사데), 어떤 경우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버가모), 어떤 경우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두아디라),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어떤 경우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어떤 경우는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 교회가 처해있는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종말을 품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종말을 소망하고, 종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 교회와 종말이 함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연히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계획은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질 근본 자세가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잃어버린 교회는 쉽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선 안 됩니다. 아기를 가질 때 어머니가 가진 사랑처럼 일평생 계속되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충성도 잃어선 안 됩니다. 서리가 내리는 모진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복음에 충성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우상 숭배는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따라선 안 됩니다. 발람

의 가르침이 좋아도 결코 버리지 같은 우상을 따를 순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가졌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짐도 있어선 안 됩니다. 이세벨이 두 팔을 벌리며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유혹해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사데 교회처럼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살아 있으나 죽은 교회는 생명을 잃은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 받은 교회입니다. 이들은 말씀의 중요함을 알았고 말씀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성경책을 샀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도 가져선 안 됩니다. 교회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합니다. 라면과 오뎅 같은 음식은 미지근하면 안 먹는 만 못합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현실에 죄가 가득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성도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을 소망하는 백성들입니다. 이 모두가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셨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까?

창조로부터 시작된 교회

이 질문에 대해 “교회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눈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이 땅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살펴 볼 것이며 오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사명을 가져야 하는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타락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땅에서 시작된 죄는 하늘까지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노아 홍수라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죄의 역사는 바벨탑 사건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다시 이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들과 계약을 맺으셨으며 이들을 통해 이 땅을 저주에서 건지시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고 부르셨고 믿음을 의롭다 하셨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다윗 시대

다윗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왕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다윗 왕의 후예들도,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았 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실 것이며 그 종은 백성의 죄를 지고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당함으로 이 땅을 회복할 것입니다(사 53:4-6).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일과 고난 받는 종의 사명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심

주님은 공생애 처음부터 열두 제자를 부르셨으며 그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핵심이며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요 동시에 구원할 남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주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으며 삼일 후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오순절 교회

주님이 승천하신 뒤 5일 지난 다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 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구약의 교회와 다른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며 이 교회를 우리의 근본으 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흩어졌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었고 이들을 새로운 능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아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고 스테반은 순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41-47에서 누가는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을 말합니다.

- 1)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 빵을 떼고 기도에 전념함.
초대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 2) 경외함(Fear)이 모든 영혼에 있었음.
- 3) 믿는 자들은 함께 있었고 서로 나누었음.
“함께 함”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 4) 성전에 참여함.
- 5) 모든 사람과 빵을 나눔.
- 6) 신앙의 기쁨.

교회와 종말

무엇보다 우리는 종말의 관점에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관점이란 언젠가는 이 땅이 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교회가 종말을 확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고 부활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계시록(Revelation)

계 1:1-8

계시록의 본질

계시록(Revelation)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브루스 메츠거(B. Metzger)라는 학자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록은 닫혀 있는 책(a closed book)이지만, 실제로 계시록은 전혀 반대의 책입니다. 본래의 뜻을 읽으면 우리의 눈에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날 것이며,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것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놀랍도록 아름답고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와 교인에게 위로를 가져다주며 이 땅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죄의 역사에 대해 바른 자세와 소망을 심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책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이상한 책이 되어 버리지만, 이 책이 특별한 장르(묵시)라는 것을 알 때 그 진미를 알 것이며 얼마나 의미 있는 책이란 것을 알 것입니다.

계시록의 해석 원칙

계시록이 난해한 것은 해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학적으로는 우리에게 낯선 묵시 문학이라는 장르의 책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다가옵니다. 먼저 계시록은 묵회적인 책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당시 교회가 로마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 묵회적으로 위로하고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징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수많은 상징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은 감정적인 책이요 율법서는 의지적인 책이고 로마서는 지성적인 책이라면 계시록은 상상력의 책입니다. 무엇보다 유의할 것은 요한의 상징적 언어입니다. 요한은 수많은 상징적인 언어와 숫자를 사용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하며 역사적 사건들은 자연 현상으로 비유하고 색깔과 숫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상징은 7이라는 숫자입니다. 이는 완전을 뜻하는 수사로서 요한은 이 숫자를 통해 책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1:9-3:22)

일곱 인(4:1-7:17)

일곱 나팔(8:1-14:20)

일곱 대접(15:1-22:7)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은 죽임 당한 양(5:6)으로서 양의 이미지는 일곱 비전에

서 24번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 힘, 영광, 축복을 가지며(5:12) 일곱 개의 위대한 특성은 이상이 전개되는 동안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장르 : 묵시 문학(apocalyptic literature)

주님이 오시기 전 2세기 동안 그리고 오신 후 2세기 동안 수많은 묵시 문학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처음으로 나타는 묵시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지만, 도리어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침략 가운데서 새로운 문학이 생겨납니다.

묵시록은 다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1) 먼저 표현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하며 역사적 사건들은 자연 현상으로 비유하고 색깔과 숫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 (2) 다음으로 묵시 문학은 우주를 선과 악이라는 두 진영으로 나누고 이 두 진영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말합니다(하나님과 사탄).
- (3) 대개는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들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엔 선이 승리할 것이며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승리를 위한 산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때를 정하시며 때가 될 때 간섭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악의 세력이 완전히 부서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마지막 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며, 낙원이 회복될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숫자는 산술적 의미를 가지지만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 헬라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들은 숫자의 마술적 힘을 깨달았고 플라톤 같은 경우는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숫자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모든 이름은 숫자적인 가치를 지녔으며 이름의 숫자는 일종의 코드의 역할을 합니다. 666은 짐승의 숫자(13:18)로서 이는 로마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7은 고대에 완전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해와 달을 포함해서 하늘에 7개의 행성을 규정했으며 이는 천문학적인 완성을 의미합니다. 음악도 7음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도 7일간 이루어졌습니다.

계시록은 7이란 숫자를 사용함으로 교회의 핍박은 특정한 지역의 문제이거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는 데 핵심은 7이라는 숫자입니다. 일고 교회에 보내는 각 메시지가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마지막에는 일곱 비전이 나타나며 이 일곱 비전도 각각이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숫자 4는 7과 긴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지구의 네 모퉁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에 부는 네 바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구에는 네 요소(fire, air, water, earth)가 있고 4계절이 있습니다.

역사서로서의 계시록

무엇보다 계시록은 역사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은 역사와 무관하거나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들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며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계시록은 구약의 역사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는 직선적이며 동적으로 움직이며, 역사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며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는 역사관입니다.

아울러 점층적입니다. 일곱이라는 단위로 순서적으로 나타나지만 앞의 내용은 뒤의 내용의 기초가 되며 뒤의 내용은 앞의 내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의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개인의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속한 역사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의 부패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실 가운데서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존재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계시록의 주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축소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의 결과와 영향이 인을 뿔 때에 보이기 시작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 땅을 회복하고 죄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면서 최종적인 힘입니다.



일곱 교회

계 2:1-7

계시록의 사건들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이 겪는 일을 말합니다. 일곱 교회가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교회로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일곱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인은 교회와 세상 간의 갈등을 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며 기존의 사회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선포는 기존의 사회에 대한 도전과 심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사회 구조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갈등을 겪게 되고 기득권층은 모든 권리를 내려 놓아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일곱 나팔은 이러한 갈등에서 기독교인들이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은 요청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영적 싸움을 피하거나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순교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마침내 악이 정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2:1~3:22까지는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들이며 그 핵심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부르심에 충실할 때만이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아울러 교회의 주님은 역사와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 염세주의를 갖거나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시대의 징조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마 16:2-4) 주님과 함께 참여해서 옛 시대가 무너지는 가운데 새 시대가 오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개 교회와 전체 교회는 항상 자신을 엄격하게 살펴야 합니다. 교회의 성공은 결코 세상적인 성공이 되어선 안 되며 얼마나 주님의 모습을 닮으며 그리고 주님의 사역과 소망이 교회의 모든 사역에 스며들어가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을 비판(self-criticism)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이며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새 공동체의 등장은 모든 환경에서 기쁨의 사건이며 아울러 영원히 현대적인 사건입니다.

에베소 교회

일곱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많은 면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교회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고,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주님은 지팡이를 든 목자로 그려지고 있으며 이들의 선한 점은 어

려움을 견디었고 박해를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에 가졌던 기쁨과 열정, 확신과 헌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첫 사랑을 잃었노라.” 이제 심각한 회개를 요청받을 뿐 아니라 교회로서의 지위를 잃을 위기를 맞았습니다. 표면 아래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는 모든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교회는 서서히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것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도 상실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헌신도 잃을 것입니다. 필요가 없는 곳에 섬김도 없으며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no need, no service, no church).

또 다른 칭찬은 니콜라 당을 미워한 것입니다. 이 무리들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 근처에 니콜라라는 학자가 살았으며 그는 기독교에 반대되는 신앙과 실천을 가르쳤습니다. 버가모에 보낸 편지에 따르면(2:14-15), 니콜라당은 구약의 발람에 비유되며 성적인 타락과 함께 우상에게 음식을 바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며 박해를 견딘 성도에게는 생명나무의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의 경우, 유대인 회당으로부터의 적대감과 학대를 견디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을 몰아냈으며 이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는 참된 메시아이시며 참된 유대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약의 성취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아담의 죽음으로서 도덕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이 죽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부활로 우리는 첫 번째 죄와 첫 번째 죽음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예수의 입에는 검이 들려 있으며(1:16) 이는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란 뜻입니다. 이제 이 검은 죄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세력을 물리칠 것입니다. 버가모는 아시아의 고대 수도로서 지금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는 능력과 보좌의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최근에 버가모 교회는 지도자 안디바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더욱 주님께 순종합니다. 이들에게 다가온 유혹은 우상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구입하거나 우상 숭배에 참여함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도록 경고 받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들은 에베소 교회와 반대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헌신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했으며 신앙과 삶이 하나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데 교회

환상의 배경은 왕궁으로서 많은 신하들이 왕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는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시며 성령을 주관하시며 일곱 별인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살았으나 실제로는 죽은 교

회라는 심판이었습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가 상실한 모습과 같았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연상시킴으로 다윗의 집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와 삶, 복음은 우리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담과 구약의 교회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곧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은 자신을 세 가지 방식으로 이 교회에 보여 주셨습니다 : 아멘, 순교자, 시작. 이 셋은 예수님의 의존, 권위, 그리고 신뢰성을 말하는 상징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인

계 4:1-11

미래의 비전(4:1-7:17) : 일곱 인

이 부분은 전체 계시록이 단락 중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두루마리에 담겨있는 내용은 온 세상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보여주며, 죄는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파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근본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어야 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를 알고 동참해야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으며 누구도 열수가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는 인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문명을 건설하도록 요구 받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실현시키셨습니다. 주님의 삶, 죽음,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축소판이었습니다.

일곱 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이 후 이 땅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삶의 효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먼저 타락한 문명 안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삶의 자세는 아담의 죄에 기초한 삶의 자세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들, 고통들이 다가오는 것은 복음의 결과들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심는 채널입니다.

먼저 4장과 5장은 준비 행동입니다. 4:2절에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는 말은 앞으로 기록한 일의 관점을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보석과 같은 것으로만 은유될 수 있는 분으로서, 이러한 설명에서 독자는 하나님만이 우주의 통치자임을 확신함을 갖습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지위는 결코 흔들림이 없으며(4:11) 어떤 환경에서도 주권이 위협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의 일곱 뿔과 일곱 눈은 완전한 권위를 상징하며 전지전능하심을 말합니다.

두루마리는 구약에서 빌려온 상징으로서(겔 2:9-10) 앞으로 드러날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관점이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지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6:1-7:17).

영광과 찬송 대신에 엄청난 고통들이 기록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명의 말탄자(6:2-8)는 인간 문명이 무력과 전쟁과 기근과 다른 파괴적인 힘들로 인해 파괴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섯 번째 인(6:9-11)은 하나님의 말씀

에 충성한 종들의 순교를 말하고, 여섯 번째 인(6:12-14)은 이 땅의 혼돈과 거주자들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6:16절에서는 양의 진노가 나타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땅 위의 모습들에 대한 대답을 제공합니다. 양의 진노는 결코 세상의 진노와 다릅니다. 그러면 양의 진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양의 진노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질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인간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고통에 대한 치유책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진노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양의 진노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입니다.

미래에 대한 첫 번째 비전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세상의 미래를 말합니다. 문명과 땅의 파괴는 이것을 나타냅니다.

4명의 말 탄 자가 이 땅에 고통을 뿌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배척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종들이 있습니다(6:9).

이제 전체 비전의 시작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역사의 특정한 시기

가 아니라, 모든 역사적 시기의 상황을 말함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양을 거부한 사람들과 양을 받아들인 사람들(7:3)의 대립입니다.

첫 번째 인물

첫 번째 나오는 네 개의 인물은 하나의 단위로서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요한은 오라는 말씀을 듣고(6:1,3,5,7) 말을 보게 되며(6:2,4,5,8) 말 탄자를 기술하고(6:2,4,5,8), 말과 말 탄 자가 행하는 일을 말합니다(6:2,4,6,8).

네 명의 말 탄 자들은 이 땅에 악을 실어 나릅니다: 정복, 전쟁, 기근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 네 재앙은 악이 인간의 삶과 문화에 가져다주는 전체의 대표입니다. 네 개의 악들은 순서에 따라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재앙이 다음 재앙은 준비해 주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재앙을 준비해주는 형태입니다. 이곳에 나오는 백마는 악을 상징하지만 19장에 나오는 백마는 예수를 상징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백마는 순결과 선함을 가장하는 세력입니다. 홍마는 전쟁에서의 피를 상징하며 이 땅으로부터 살롬을 탈취합니다. 저울은 흔히 정의를 상징하지만 이곳에서는 경제적인 통치를 나타내는 악입니다.

질병과 죽음을 상징하는 네 번째 청황색 말은 네 인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맞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행동하고 유혹하고 성공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의 힘은

결코 완전한 통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4분의 1만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들이 현실의 악에 대해 결코 좌절하거나 도피하지 말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인

다섯 번째 인은 앞의 네 개의 인과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의 네 인들의 결과를 말하며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인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은 자연의 재해를 말합니다. 이 모습은 창조주의 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의 사탄의 능력과 대조됩니다. 악마는 결코 창조를 파괴할 수 없으며 단지 흠집을 낼 뿐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예수의 부활로 정복되었으며 예수의 능력은 오늘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뿐입니다. 예수는 사탄이 망친 것을 되돌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네 바람은 무엇입니까? 지구의 네 모퉁이를 붙들고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지구가 망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행하십니다. 백성들을 사탄의 세력에서 건지시고 동시에 사탄의 세력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명의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

적 표현입니다. 구약의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모으면 14만 4천이 됩니다. 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아울러 이곳에 나오는 대환난도 언젠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가 겪는 죄악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인은 다섯 번째 인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으로서 복음의 능력으로서 백성들을 두려움에서 건지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 인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사건들을 완성하는 동시에 다음 일곱 나팔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곱 번째 인이 열리자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일곱 나팔을 불고, 그러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천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황금 향단을 들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인에서 성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을 견디어야 하는지 물었으며, 여섯 번째 인에서는 큰 환난 가운데서도 격려를 받았으며, 일곱 번째 인에서는 하나님께 기도의 제사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며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천둥이나 번개나 지진과 같은 상징들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일곱 인의 사건에서 주님은 교회들로 하여금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죄의 역사가 넘쳐나지만 결코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더 큰 능력으로 죄를 물리치십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계 18:1-20

일곱 나팔은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와 악의 역사가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선과 악의 마지막 갈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왕국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11:15-18), 여인과 아기, 그리고 용(11:19-12:6), 하늘에서의 전쟁, 용과 여인의 자손간의 전쟁(12:17-13:18), 14만 4천의 성도(14:1-5).

먼저 요한은 하늘의 눈을 통하여 예수의 태어나심을 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거대한 용이 삼키려고 합니다. 실패한 용은 여인의 자손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다시 실패하게 되고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은 그 그물에서 벗어납니다.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해 이 땅의 역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역사입니다. 하

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죄의 방향을 따랐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갑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 땅의 최악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들

요한은 이제 이 땅에 일어날 세 가지 복음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 (1)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은 변호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을 충성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 (2) 예언자와 성도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한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의 부활로 인해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 (3) 사탄과 무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미 부활의 사건으로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이 심판은 이제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12장 7절에서 16절에 기록된 하늘의 전쟁은 특정한 장소나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된 철학과 정신들과 복음의 정신 간의 싸움입니다. 비록 죄의 역사가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창

조 세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여인의 자손에 대한 핍박은 모든 시대의 기독교회가 겪는 핍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다로부터 다가온 거대한 짐승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세력들입니다.

일곱 대접

계시록 15장에서 22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죄의 세력에게 부여지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어서 죄를 철저히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분노의 일곱 대접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바벨론을 상징하는 음녀
- (2)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 (3) 사탄과 그 무리들의 패배
- (4) 사탄이 지옥 불로 들어감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확증됩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다스리는 죄의 세력을 물리칠 것입니다. 이 땅에 주어지는 재앙들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진 것처럼 온 인류를 죄로부터 건질 것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 놓인 유리 바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를 드러내고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 (1) 첫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땅의 추하고 고통스러운 악의 거짓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 (2) 둘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사탄의 모든 계획들이 무너집니다.
- (3) 셋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철학들과 정치들의 거짓이 또한 드러나며 무너집니다.
- (4) 넷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공격들이 오히려 이들을 더 불행하게 합니다.
- (5) 다섯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출애굽의 경우처럼 바로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함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6)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유브라데 강과 용과 개구리와 같은 죄악의 세력들이 성도의 믿음을 위협합니다.
- (7)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절정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통해서 성경은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매일 겪는 삶의 고통과 악 가운데서 때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놓지 않으시며 오히려 더욱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후기

마지막 부분은 첫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됩니다(4:1 참고). 21:1-22:5의 첫 부분에서 요한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면서 하늘이 땅에 내려 오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조용함이 찾아왔으며 사람들이 만든 도시는 파괴되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도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에 대한 요한의 비전이자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교회가 가진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결코 먼 미래의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심 기관입니다.

교회에 주는 메시지

- (1) 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각 교회에 일어난 일들은 먼 훗날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 (2) 일곱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 (3) 교회는 반드시 아무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흠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다른 교회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4)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5) 교회는 온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입니다.

(6) 교회의 위험은 세상적인 요소들(바알 2:14-15, 이세벨 2:20)을 받아들이며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무해하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교회의 주된 위험은 내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항상 가질 자세는 자기 점검, 자기 비판, 고백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계시록이 소망의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회 또한 소망의 터전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10-21

이제 6단계를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와 종말이라는 주제를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 주역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셨으며 이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교회는 항상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야 하고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개혁가들의 가르침은 이를 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근본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2장에 나타난 교회는 성도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재산을 포기하기까지 헌신했으며 바울도 편지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행 5장에서는 벌써 신실치 못한 모습이 나타나며, 6장에서는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두 교회만 책망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자 기독교 신앙 이해가 얇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세속의 관습도 밀려들어오게 되었고 종교 개혁 시에 부패한 모습은 극도에 도달합니다. 개혁가들은 당시의 교회를 매춘부의 어머니라고까지 말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교회는 사회의 영향을 받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을 지키면서 영향을 받아들이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개혁가들은 순수한 교회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말씀이 바르게 설교되고 성찬이 바르게 집행되는 곳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17세기에는 경건주의자들은 루터 교회의 형식주의와 지성주의를 반발하면서 한 때 굉장한 힘을 가졌지만 그러나 곧 편협성과 감성주의로 변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요한이 말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로운 공동체

무엇보다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모든 족속에 대해 열린 모습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제 교회는 모든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때로 교회는 자기들끼리의 모습을 가짐으로 근본에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내적 그룹(In

Group)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서로 아주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단체(사상도, 기호도, 삶의 방식 등)를 뜻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인종이나 성별, 계급 등의 차별들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회가 말하는 내적 그룹(in group)과 새로운 공동체(new community)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내적 그룹의 모습을 갖는 것은 현대의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내적 그룹의 감정을 가지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의 새로운 공동체는 어떻게 다른니까?

- 1) 기초(basis)가 다름 : 내적 그룹에서는 멤버가 되는 데에는 그룹원들의 눈에 보기에 어떤 특징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특징들은 자체 안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되지만 그러나 바깥 사람들에게는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경우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멤버들의 “전적인 가치 없음”(complete lack of worthiness)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용납될 만한 어떤 자질들이 없습니다.

내적 그룹의 경우 교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공동체는 그 어느 누구도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나가 내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개방된 공동체입니다 (계 21:25).

그러면 새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 1) 공동체의 존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지만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리더를 세우지만, 그리스도만이 주님입니다. 이 새 공동체는 전적으로 값없는 은혜(free gift)입니다.
- 2) 우리는 이 공동체에 오직 초대에 응함으로 들어갑니다. 에클레시아(ekklesia)라는 말은 부름 받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뜻이며 이 초대를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인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질을 판단할 때에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나, 교육이나, 민족이나, 개인적인 깨끗함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가진 기준으로 참된 기준을 모호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는지 않는지가 참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

역사에 관한 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변화입니다. 변화는 빠르게 또는 느리게, 급격하게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를 환영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

일반적인 대답은 삶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연도, 사람도! 모든 생명에는 성취를 향한 거역할 수 없는 요구가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자들은 믿기를 사람의 일생과 인류 역사에는 유사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애굽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사는 반복이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계 21:5). 삶에는 지루한 반복 그 이상의 무엇이 있으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나 어른이나 항상 새로운 것에 끌립니다. 모든 문화에는 죽고 나서 새로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즉, 생명이 새롭게 되는 소망입니다. 새로움에 대한 소망이나 생명의 새로움에 대한 소망은 지금이 완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망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아무리 실망이 커도 좀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과 소망의 상호 관계는 개인적 삶의 특징만이 아니라 인간 역사의 특징입니다. 모든 인간 역사의 변화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노력들이 다 새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인간의 비극은 (개인과 사회 모두) 원하는 삶의 새로움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유일한 참된 갱신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이 한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계 7:14). 이들은 구속의 의미를

안 사람들이며, 참된 갱신은 공동체의 삶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다가옵니다. 인간의 역사적 존재의 성취는 새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만일 모든 사람의 소망이 새로운 삶이라면, 계시록에 나오는 개들과 주술들(계 22:15)은 새 공동체의 정신을 부인하는 악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악들이 버틸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이 길을 열어줄 것을 믿으며, 매일 같은 은총을 유지해야 하며,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선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내함으로 모든 사람들과 자신의 소망을 나누어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악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언젠가 이들을 멸망시킬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 염세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묵시 문학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또 이런 해석은 성경의 전체 해석과도 맞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인간의 역사가 진화론처럼 자연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함을 경고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제시합니다(21:1). 여기에는 새 공동체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새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는 자연 자체는 유지되고 인간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안전을 느낄 것이며, 구속에는 하나님과 인간만 아니라 자연도 포함됩니다.

요한의 비전

언젠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며 새 공동체는 새로운 인간 공동체의 교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21:22).

특별한 예배 장소가 필요 없으며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성숙의 구분도 사라질 것이며 생명수, 생명나무, 나라들의 치유(22:1-5)는 모두가 삶의 깊이를 말합니다. 요한의 참된 목적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 사회의 붕괴와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계시록의 드라마가 새롭게 태어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
럽게 하려 하시며 _ 고린도전서 1:27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_ 히브리서 10:24-25



 Memo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_ 야고보서 1:5



 Memo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_ 갈라디아서 6:9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_ 로마서 6:11



 Memo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_ 요한복음15:7





Memo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_ 야고보서 1:27



 Memo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_ 잠언 16:9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 로마서 6:11



 Memo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_ 고린도후서 3:17



12단계 개관

- 1 단계 왜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밖에 없는가?
- 2 단계 성경의 기본 I
- 3 단계 성경의 기본 II
- 4 단계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라! 성경의 파노라마
- 5 단계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성경의 중심 주제들 I
- 6 단계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성경의 중심 주제들 II
- 7 단계 성경과 교회
- 8 단계 성경과 삶의 과제 I
- 9 단계 성경과 삶의 과제 II
- 10 단계 성경과 사회 I
- 11 단계 성경과 사회 II
- 12 단계 성경과 타종교, 이단